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대한 유형화 분석

박경미* 박한솔** 최연정***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출판된 학술 논문 66편을 PRISMA단계를 거쳐 선정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문헌은 대부분 횡단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실증적 분석을 통한 청소년활동 효과성 연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둘째, 청소년활동은 동아리, 교류, 문화예술, 자원봉사, 모험탐사, 참여, 복합적 활동 등 일곱 개 영역으로 유목화 되었으며, 청소년활동은 참여여부와 횟수, 시간 등으로 측정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셋째, 청소년활동 효과는 삶의 만족, 자아개념, 진로정체감, 학교적응, 문제행동, 시민의식, 개인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활동 효과성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언하고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청소년활동, 청소년 체험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활동효과

I. 서론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청소년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데믹 이전의 청소년활동이 대면중심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현재는 안전을 이유로 각종 모임이 제약을 받으면서 비대면 형태의 청소년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팬데믹 이전에도 청소년활동에서 온라인 매체는 꾸준히 활용되었지만, 대면활동과 병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비대면 청소년활동이 대면활동에서 보였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동시에 청소년활동이 비대면의 형태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답

* 김 청소년행복연구소장, km.youth.happiness@gmail.com

** 순천향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gksthf12322@naver.com

***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학과 석·박사통합과정, miha3159@gmail.com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총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청소년활동이 점검해야 할 가치와 객관적 필요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기존 문헌들을 분석하여 대면활동으로 이루어졌던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진화하는 청소년활동의 담론에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이 본래에 갖는 목적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왔다. 초창기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체험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이 마련되면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발달 과업과 역량을 개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문성호·윤동엽·박승곤·정지윤, 2016). 특히 2000년대 이후 임파워먼트의 개념(김희성, 2002)과 OECD 생애핵심역량(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2010)이 등장하면서 청소년활동의 목적을 청소년역량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확산되었다. 이후 2009년부터는 청소년체험활동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이 등장하고 2013년에 자유학기제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청소년활동은 교육정책의 협력체제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청소년활동은 교육정책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의 진로정체성 향상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이 강조되면서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개발로 그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문성호 등, 2016). 이처럼 청소년활동의 목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단순체험에서 발달과업이라는 성장의 개념,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는 도구, 청소년의 자발적인 시도와 참여를 지지하는 자기주도적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

청소년활동 효과에 대한 연구도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의 목적이 다변화해 온 것에 반해 관련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내적변화를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종속변수로는 삶의 만족감(김형준·이광모, 2010; 진은설, 2013; 김태형, 2020), 자아개념(허성호·정태연, 2010; 박윤정·강민수, 2013; 성경주·이경아·김재철, 2017), 공동체의식(박재숙, 2010; 김성훈, 2015; 이경혜·김혜인, 2018)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시대적 목적에 따라 문제행동의 감소(이경상·박현수, 2018), 진로정체감(김태균, 2019)이 효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들은 청소년의 역량 향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변수들의 총합과 평균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효과성을 논의하고 있다(임영식·문성호·정경은, 2010; 오경희·김동준·김재근, 2016; 현안나, 2019).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청소년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연구의 영역 및 방법은 확장되지 않고 반복적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 효과성 연구들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제한적인 연구 접근방법과 함께 총체적 차원의 분석 또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의 제공방법이 전환하는 시기에, 그 효과성을 정책적 혹은 현장의 기초자료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이 적극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된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 효과를 연구한 국내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종합하고 논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문제를 작성하기 위하여 PICOTS; Population(연구대상), Intervention(개입), Comparison(대조군), Outcome(연구결과), Time(시점), Study design(연구 설계)의 절차를 사용하였고, 이중 본 연구의 방법에 적절하지 않은 Comparison(대조군)은 제외하고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조정환·송금주, 2015). 연구의 핵심질문을 기준으로 문헌을 수집하는 과정은 PRISMA 가이드라인(Moher, Liberati, Tetzlaff, Altman, & the PRISMA Group, 2009)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논문의 분석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양적 분석으로는 연구가 진행된 청소년활동의 시점(Time)과 연구 설계(Study design)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연구에 활용된 청소년활동의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질적 분석은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종합하여 질적 기술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한 것을 말한다(황환·김영환, 201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연구한 국내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2. 국내 연구에 활용된 청소년활동의 범위는 어떠한가? 3. 국내에서 발견된 청소년활동의 효과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다룬 실증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관련 학술지 중 논문 발행 당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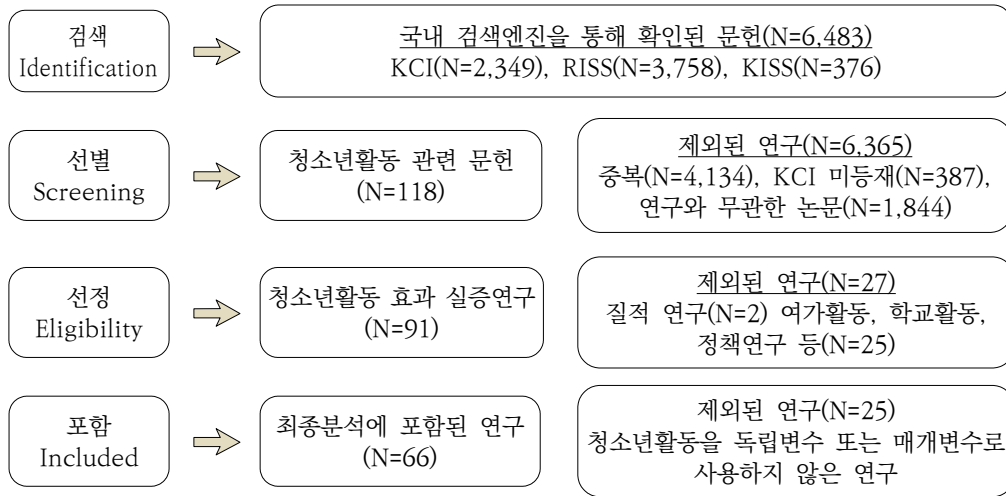
(KCI) 등재 논문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청소년문화포럼, 청소년복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논문은 총 66편으로 201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게재된 논문이다.

2. 측정도구

분석문헌 선정을 위하여 PRISMA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고, 문헌 검색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진행한 후, 추가적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검색한 문헌을 비교하였다. 최종 문헌 선정과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3명의 연구자가 각자 검색과 코딩을 실행하고, 해당 내용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STATA 1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절차

분석대상 문헌의 선정은 PRISMA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색-선별-선정-포함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황은선, 2019). 먼저 검색과정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 발표된 문헌으로 ‘청소년활동’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단계에서 확인된 논문은 총 6,483건으로, KCI 2,349건, RISS 3,758건, KISS 376건이다. 두 번째 단계인 선별에서는 검색으로 확인된 논문 중 중복되거나 KCI미등재 논문, 청소년활동 효과와 관련이 없는 문헌은 제외하고 총 118건을 선정하였다. 선별에서 배제된 문헌은 중복 4,134건, KCI 미등재 문헌 387건, 본 연구와 무관한 문헌 1,844건으로 총 6,365건이다. 세 번째 단계인 선정에서는 각 연구자가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고 교차 확인하여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 91건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배제된 논문의 기준은 질적 연구, 종교, 학교활동, 정책연구를 중점으로 다룬 논문이었다. 마지막 단계인 포함에서 최종으로 선정된 문헌은 청소년활동을 독립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총 66편의 연구이다.



〈그림1〉 분석논문 선정과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66편의 논문을 코딩하기 위하여 세 명의 연구자가 각 문헌을 확인하고 총 8개의 변수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8개 변수는 연구자, 연구대상, 지역, 연구방법, 자료유형, 청소년활동효과(종속변수), 청소년활동(독립변수), 청소년활동 측정이고 이중 청소년활동은 문성호 등(2016)이 제시한 청소년활동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청소년활동효과는 코딩과정에서 유목화(categorizing)작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한 내용을 교차 확인 하였으며, 확인 과정에서 일치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논의를 거쳐 재확인 및 결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코딩을 완성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문헌 중 30건(45.4%)은 2013년 이전에 발표되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건(36.4%), 2018년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는 12건(18.2%)으로 관련 연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연구 설계는 42건(63.6%)에 달하는 연구가 횡단연구를 선택했으며 종단연구는 13건(19.7%)이었다. 그

밖에 활동의 사전사후 설문을 통해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도 11건(16.7%) 확인되었다. 자료의 유형은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40건으로 1차 자료보다 많았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전국단위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건, %)

구분		논문
계재연도	2010-2013년	30(45.4)
	2014-2017년	24(36.4)
	2018-2020년	12(18.2)
연구방법	횡단	42(63.6)
	종단	13(19.7)
	사전사후검사	11(16.7)
자료유형	1차자료	26(39.4)
	2차자료	40(60.6)
연구대상	중학생	21(31.8)
	고등학생	8(12.1)
	대학생	2(3)
	초등학생 ~ 중학생	6(9.1)
	중학생 ~ 고등학생	20(30.3)
	초등학생 ~ 고등학생	5(7.6)
	중학생 ~ 대학생	1(1.5)
	기타	3(4.6)
표본수	100명이하	8(12.1)
	100-500명 미만	12(18.2)
	500-1,000명 미만	5(7.6)
	1,000명 이상	41(62.1)
지역특성	전국	47(71.2)
	수도권	7(10.6)
	광역시도	8(12.1)
	중소도시	2(3)
	논문에 표기 안 됨.	2(3)

2차 자료의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27건 확인되었고, 그밖에도 청소년나눔활동실태 및 개선방안 자료, 경기교육중단연구, 한국복지패널 등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분석문헌에서 청소년은 연령보다 학년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며, 중학생만을 별도로 연구한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만을 연구한 경우는 8건, 중·고생을 함께 연구한 경우는 20건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분석문헌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청소년활동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2차 자료 및 횡단연구에 치중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의 상세 정보

연번	연도	연구자	학술지명	대상 ¹⁾	표본 ²⁾	연구	데이터	지역
1	2020	김태형	청소년문화포럼	중	2,351	종단	2차	전국
2	2020	이응택 등	한국청소년연구	고1	1,062	횡단	2차	전국
3	2020	전자배	한국청소년연구	중1	2,526	횡단	2차	전국
4	2019	김태균	미래청소년학회지	중3	2,280	횡단	2차	전국
5	2019	김민선 등	청소년학연구	중고	2,351	종단	2차	전국
6	2019	김민선 등	청소년학연구	중고	2,351	종단	2차	전국
7	2019	신인순 등	청소년학연구	중고	1,927	종단	2차	전국
8	2019	현안나	청소년학연구	중고	2,598	횡단	2차	전국
9	2018	이경혜 등	청소년학연구	중고	4,865	횡단	2차	전국
10	2018	박영혜 등	청소년학연구	15-17세	14	사전사후	1차	경북
11	2018	이경상 등	청소년시설환경	초4-고3	7,052	횡단	1차	전국
12	2018	최경일	청소년복지연구	중2	1,200	횡단	2차	전국
13	2017	최경옥	청소년복지연구	중	922	횡단	1차	서울
14	2017	손원빈 등	청소년학연구	고	2,108	종단	2차	전국
15	2017	성경주 등	청소년상담연구	중	4,051	종단	2차	경기도
16	2017	박수원 등	미래청소년학회지	중	4,051	종단	2차	전국
17	2017	안재진 등	청소년복지연구	초4-고3	7,052	횡단	2차	전국
18	2017	권일남 등	청소년시설환경	대학생	95	사전사후	1차	전국/국외
19	2016	정득 등	한국청소년연구	고2	1,921	횡단	2차	전국
20	2016	구지윤 등	청소년학연구	중1	2,351	횡단	2차	전국
21	2016	이경상	청소년복지연구	초4-고3	7,052	횡단	2차	전국
22	2016	양혜린 등	청소년시설환경	고1	1,972	횡단	2차	전국
23	2016	오경희 등	청소년학연구	초중	96	사전사후	1차	충북
24	2016	이응택 등	청소년학연구	중3-고2	2,270	종단	2차	전국
25	2016	황동주 등	청소년문화포럼	고1-2	32	사전사후	1차	경기
26	2015	김영희 등	청소년학연구	초5-중	67	사전사후	1차	경북
27	2015	정선영	청소년시설환경	중고	973	종단	2차	전국

연번	연도	연구자	학술지명	대상 ¹⁾	표본 ²⁾	연구	데이터	지역
28	2015	강현주 등	청소년학연구	고1	1,978	횡단	2차	전국
29	2015	최경학 등	미래청소년학회지	청소년 ³⁾	126	사전사후	1차	-
30	2015	박경실	청소년학연구	중	491	횡단	1차	부산/경남
31	2015	박주현 등	청소년시설환경	고1	2,108	횡단	2차	전국
32	2015	김윤정 등	청소년학연구	중3	2,111	횡단	2차	전국
33	2015	김성훈	한국청소년연구	중	2,280	종단	2차	전국
34	2015	차한솔 등	청소년학연구	중1	1,426	횡단	2차	전국
35	2014	이현주 등	한국청소년연구	중	2,259	종단	2차	전국
36	2014	조남익 등	청소년학연구	대학생	35	사전사후	1차	서울
37	2013	정건희 등	미래청소년학회지	중고	1,606	횡단	2차	전북
38	2013	김재엽 등	한국청소년연구	중고	6,492	횡단	2차	전국
39	2013	도종수 등	청소년복지연구	12-18세	2,070	횡단	2차	전국
40	2013	유비	청소년복지연구	중	388	횡단	1차	서울, 경기
41	2013	김도영	청소년학연구	고2	941	횡단	2차	전국
42	2013	김태균	청소년시설환경	중2	2,280	횡단	2차	전국
43	2013	김도영 등	청소년학연구	중고	317	횡단	1차	J지역
44	2013	김도영	청소년학연구	청소년	1,462	횡단	2차	전국
45	2013	곽윤정 등	청소년학연구	중	457	횡단	1차	전국
46	2013	김진호	미래청소년학회지	중	160	사전사후	1차	전국
47	2013	진은설	한국청소년연구	중고	308	횡단	1차	-
48	2012	류시영 등	한국청소년연구	초중고대	203	횡단	1차	-
49	2012	김남정 등	청소년학연구	청소년	145	횡단	1차	전국
50	2012	김윤나	청소년시설환경	중고대	202	횡단	1차	전국
51	2012	최형임 등	미래청소년학회지	중1	2,351	횡단	2차	전국
52	2012	김지혜	청소년복지연구	중1	1,426	횡단	2차	전국
53	2012	송수지 등	한국청소년연구	중고	6,908	종단	2차	전국
54	2011	도종수	청소년복지연구	중고	2,827	횡단	2차	전국
55	2011	고관우 등	청소년복지연구	중1	2,351	횡단	2차	전국
56	2011	박재숙	청소년복지연구	중1	2,351	횡단	2차	전국
57	2011	이수연 등	청소년학연구	중1-고2	40	사전사후	1차	안양
58	2010	김형준 등	청소년복지연구	중고	2,548	횡단	1차	강원
59	2010	임영식 등	청소년학연구	초중	229	사전사후	1차	서울, 경기
60	2010	허철수 등	청소년복지연구	중고	991	횡단	1차	제주
61	2010	김윤나 등	청소년복지연구	중고	579	횡단	1차	군산
62	2010	허성호 등	한국청소년연구	중고	1,395	종단	2차	전국
63	2010	조정은	청소년학연구	11-16세	18	사전사후	1차	광주
64	2010	문성호 등	청소년복지연구	초4-고	625 ⁴⁾	횡단	1차	전국

연번	연도	연구자	학술지명	대상 ¹⁾	표본 ²⁾	연구	데이터	지역
65	2010	박재숙	청소년학연구	중고	2,004	횡단	2차	전국
66	2010	이용교 등	청소년학연구	13-18세	524	횡단	1차	전국

- 1) 중(중학교 1,2,3학년 전체), 고(고등학교 1,2,3학년 전체), 대학(대학생), 특정 학년만 대상으로 한 경우만 학년을 표기함. 학년이 아닌 연령을 사용한 경우 연령을 표기함.
- 2) 패널 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의 경우 각 wave의 총합 대신 개별 id수를 기록함.
- 3) 논문에서 학년이나 연령이 표기되지 않고,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라고 언급한 경우에 해당함. 예)다문화 청소년, 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청소년 등
- 4) 해당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동시에 분석하고 분석 대상수를 달리함. 만족도의 경우 1,141명이고, 청소년활동효과는 625명을 대상으로 함.

2. 청소년활동 측정방법

표 3은 분석문헌들이 활용한 청소년활동 및 측정방법을 분류한 결과이다. 이를 위하여 문성호 등(2016)이 「청소년활동 영역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8개 영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연구는 선행연구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현존하는 청소년활동을 건강증진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탐사활동, 문화예술활동, 자원봉사활동, 진로활동, 참여활동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별로 세부 활동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8개 영역 중 분석문헌에서 파악되지 않은 건강증진, 과학정보, 진로활동을 표 3에서 제외하였다. 일부 분석문헌에서는 건강증진, 과학정보, 진로활동 등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과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복합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설명하였다. 또한, 동아리활동은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활동의 영역을 세분화 하지 않고 동아리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다수의 활동이 동시에 연구된 경우는 중복해서 분류하였다. 중복 표기 문헌은 총 4편으로 논문 번호 1, 27, 56, 65가 해당한다.

표 3에 유목화 되어 있는 청소년활동의 각 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동아리활동은 학교내외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단체 활동으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분석문헌들은 상세한 활동 내역을 분석하기보다는 참여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학교에서 진행된 활동인지 학교 밖 활동 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었다. 두 번째 교류활동은 국제, 남북, 지역교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된 활동으로는 해외봉사활동(조남익·김고은, 2014)과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국내외교류활동이 있다.

이 중 한국복지패널이 교류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질문은 “지난 1년 간 국내 혹은 외국에서 다른 지역 혹은 나라의 청소년들과 만나서 사귀면서 다양한 체험을 공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까?”였다. 세 번째, 문화예술활동은 예술체험, 축제문화, 다문화이해 등을 말하는데, 난타, 드럼 등 악기 연주를 체험하거나 문화축제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은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청소년활동으로 이 영역은 국내 봉사활동만 포함하고 있다. 해당 연구들은 청소년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인지 학교나 다른 단체로부터 계획된 봉사활동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 번째 모험탐사활동에 포함된 영역은 산림치유프로그램과 해양체험활동, 낚시 등 환경생태탐사활동이나, 모험활동과 관련한 국제성취포상제에 참여한 경우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잼버리와 같이 생존야영, 패러글라이딩 등 모험활동과 생태탐사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

복합적 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구분 없이 일원화시키고, 모든 활동의 총 참여횟수나 시간 등의 총합으로 접근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대다수가 2차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복합적 활동에 기준이 된 자료는 ① 진은설·임영식(2008) ② 한국청소년핵심역량진단조사(2009) ③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 ④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⑤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이다. 각 자료가 제시하는 상세한 청소년활동은 표 4에 별도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이용/제공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시설 안에서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청소년활동의 참여 경험으로 정의한 연구이다. 이 영역에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인증수련활동,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사업 등 포괄적 개념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표 3〉 청소년활동 측정방법

(단위: 건)

청소년 활동	측정방법	문헌번호	건수
동아리활동	참여(여부, 시기)	1, 3, 40, 51, 53, 60	6
교류활동	참여(여부, 횟수)	27, 36	2
문화예술활동	참여(여부, 횟수, 시간)	10, 19, 27, 32, 45, 63	6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횟수, 시간, 수준, 동기, 만족도)	8, 9, 11, 16, 17, 18, 21, 25, 33, 34, 38, 52, 54, 57, 58, 62, 65	17
모험탐사활동	참여(여부, 만족도)	23, 26, 29, 30, 48	5
참여활동	참여(횟수, 정도, 수준)	50, 61, 66	3

청소년 활동		측정방법	문헌번호	건수
복합적 활동	①	참여정도	43, 49	26
	②	참여횟수	13	
	③	참여횟수	27	
	④	참여여부	39, 65	
	⑤	참여(여부, 시간)	1, 2, 4, 5, 6, 7, 12, 14, 15, 20, 22, 24, 28, 31, 35, 41, 42, 44, 55, 56	
시설이용/제공프로그램		참여여부	37, 46, 47, 59, 64	5

중복으로 분류된 문헌 1, 27, 56, 65임.

〈표 4〉 복합적 활동 세부내용

복합적 활동		세부내용
①	진은설, 임영식(2008)	12개 범주화(문화예술, 과학정보, 스포츠, 모험개척, 환경보호, 직업능력, 참여, 교류, 문화강좌수강, 봉사, 청소년단체참여, 학교관련활동)
②	한국청소년핵심역량 진단조사(2009)	6개 범주화(스포츠, 문화, 봉사활동, 지역모임, 종교, 정치)
③	한국복지패널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조사됨 (진로, 문화예술, 취미, 수련, 모험개척, 자원봉사, 교류 등)
④	아동청소년종합실태 조사	10개 범주화(문화예술, 취미특기, 과학정보, 체력단련, 모험개척, 환경보호, 직업능력, 자원봉사, 정책참여, 교류)
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9개 범주화(건강/보건,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인성)개발)

이상의 분류에 따르면, 가장 빈번히 연구되는 청소년활동은 복합적 활동으로 26건이 확인되었고, 이중에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매년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의 9가지 범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연구되는 활동은 자원봉사로 총 17건 확인되었다. 청소년활동의 측정방법은 대다수 연구가 단순 참여여부와 시간, 횟수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참여 동기, 만족도의 수준을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표 5는 청소년활동의 사용빈도를 연도별로 정리한 표이다.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16년 이전에는 동아리, 교류, 모험탐사, 참여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10년대 후반에는 자원봉사활동이나, 복합적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단일화시켜 이해하는 효과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활동 연구의 범위가 축소되었기 보다는 청소년활동의 연구가 질적 연구 또

는 척도 개발 연구에 집중되는 학계의 현황이나 2차 자료의 접근성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청소년활동 연도별 사용빈도

활동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동아리활동	1	-	2	1	-	-	-	-	-	-	2	6
교류활동	-	-	-	-	1	1	-	-	-	-	-	2
문화예술활동	1	-	-	-	-	2	1	1	1	-	-	6
자원봉사활동	3	2	1	1	-	2	2	3	2	1	-	17
모험탐사활동	-	-	1	-	-	3	1	-	-	-	-	5
참여활동	2	-	1	-	-	-	-	-	-	-	-	3
복합적 활동	1	2	1	5	1	3	3	3	1	4	2	26
계	8	4	6	7	2	11	7	7	4	5	4	65

* 표 3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고, '시설이용/제공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음

3. 청소년활동 효과

청소년활동 효과는 분석문헌의 종속변수를 유목화하여 표 6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활동 효과는 삶의 만족, 자아개념, 진로정체감, 학교적응, 문제행동, 시민의식, 개인역량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일부 문헌들이 청소년활동의 단일 효과를 측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파악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효과를 언급한 문헌의 경우는 중복하여 구분하였다.

먼저 첫 번째 효과로 삶의 만족은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삶의 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긍정적 정서 등의 용어로 정의되며 연구된 경우이다. 이 영역에 해당되는 11편의 문헌 중 5편(1, 24, 31, 52, 56)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김신영 외, 2006) 변수를 사용한 경우로, 해당 변수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와 같이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한다. 그밖에 Diener와 그의 동료들이(1985) 개발한 삶의 만족도를 활용한 경우도 1편 확인되었다. 또한,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등을 측정한 경우는 Subjective Happiness Scale(Lyulmisky & Lepper, 1999)이나 옥스퍼드 행복척도 설문지(Hills & Argyle, 2002)를 활용하였다. 그밖에 가정생활만족도 및 긍정적 정서를

파악한 연구도 삶의 만족 카테고리에 분류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삶의 만족은 삶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평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연구에서 청소년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자아개념에 포함된 연구는 총 10건이었다.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데, 자아개념을 연구한 문헌들은 주로 친사회성, 리더십, 공동체의식, 세계시민의식 등 시민의식의 발달과 통합적으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아개념 중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주로 2차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의 경우 청소년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거나 자신의 성품을 판단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아탄력성은 긍정적사고, 문제해결력, 친밀행동, 감정조절능력으로 측정되고 있다(김미향·김성희, 2010). 자기효능감은 Sherer(1982)와 차정은(1997)이 개발한 척도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된다. 자기효능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 등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자아개념을 종합해보면, 청소년활동 효과로써 자아개념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 스스로의 내·외적 가치를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진로정체감에 해당하는 연구는 총 6건으로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진로의식이 해당한다. 해당 연구는 모두 2차 자료를 사용한 경우로, KCYPS(진로정체감)와 청소년나눔활동실태조사(진로성숙), 한국복지패널 아동용 부가조사(진로의식; 진로의사결정태도)가 활용되었다. 먼저 KCYPS에서 확인되는 진로정체감은 공인규(2008)가 개발한 30문항을 8개 문항으로 요약하여 미래 계획, 전공하고 싶은 분야, 희망직업, 희망직업에 대한 자신의 의지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나눔활동실태조사의 진로성숙은 총 13문항으로 앞으로의 계획, 자신의 계획 실현을 위한 노력 정도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복지패널의 진로의사결정태도는 청소년이 자신의 장점에 대해 파악하는 정도와 진로에 대한 선택의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로정체감을 효과로 제시한 문헌들은 청소년활동의 경험이 개인의 진로계획 수립이나, 수립할 의지, 실천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학교적응은 총 13개의 문헌이 해당하는데 학교생활적응과 성적,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 등이 포함된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에 집중하거나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지, 청소년이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판단하는 변

수들이었고 자기주도성은 학습에 대한 애착, 도전정신, 자기이해 등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을 변수로 활용한 연구는 1편이 확인되었는데 유일하게 객관적 변수를 효과로 제시한 연구였지만,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성적은 청소년의 자기기입식 조사로 파악된 정보였다.

다섯 번째 문제행동은 청소년비행, 휴대폰의존도,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출, 공격성, 우울, 분노, 정서 상태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로 총 10건의 연구가 확인되었다. 이는 스스로의 비행경험을 보고한 청소년이 청소년활동 이후 문제행동의 감소와 우울 및 분노 공격성 등의 정서적 성향에 변화를 경험하는지 파악하는 연구들이었다. 분석문헌의 연구결과 청소년활동은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6〉 청소년활동 효과

단위: 건

청소년활동효과	세부내용	문헌번호	건수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행복감, 삶의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긍정적 정서	1, 24, 31, 45, 47, 48, 49, 52, 54, 56, 58, 62	12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15, 21, 25, 26, 29, 36, 45, 53, 60, 62	10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진로의식	4, 14, 17, 21, 27, 62	6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적, 학습주도성	2, 5, 6, 9, 13, 21, 32, 34, 35, 42, 46, 51, 55	13
문제행동	청소년비행, 휴대폰의존도,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출, 공격성, 우울, 분노, 정서안정(주의산만, 공격성 등)	11, 22, 30, 35, 38, 40, 41, 43, 44, 45	10
시민의식	다문화수용도, 세계시민의식, 시민성	9, 12, 21, 36, 37, 66	6
	대인관계, 협업능력, 사회성 발달	3, 10, 25, 36, 39, 62, 63	7
	공동체의식	7, 9, 15, 16, 17, 19, 20, 21, 26, 28, 31, 33, 35, 36, 52, 55, 65	17
개인역량	청소년활동 관련 역량 (e.g. 문화예술참여 → 문화예술의이해력 증진)	26, 59, 64	3
	리더십, 임파워먼트, 생활역량	8, 18, 21, 23, 50, 57, 61	7

참조: 연구대상이 되는 66개의 문헌 중 2개 이상의 종속변수를 사용한 경우 중복하여 분류함.

여섯 번째 시민의식은 다문화수용도, 세계시민의식, 시민성, 대인관계, 협업능력, 공동체의식 등을 포함한다. 먼저 다문화수용도, 세계시민의식, 시민성에는 총 6편의

문헌이 포함되었다. 다문화수용성을 연구한 문헌은 주로 양계민과 정진경(200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척도는 다문화 이웃(친구)를 수용하는 정도, 다문화 사람들과의 교제 및 결혼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시민의식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의 가치, 세계적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세계적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등이 해당한다. 시민성을 연구한 37편 문헌은 자율성, 참여의식, 공동체의식을 종합하여 시민성이라는 통합적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시민의식 중 공동체의식은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로 총 17편의 연구가 확인되었는데 1편을 제외하고 모든 연구가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KCYPS, 청소년나눔활동의실태조사, 경기교육중단연구이다. 먼저 KCYPS에서 사용한 공동체 의식은 권혜원(2004)이 개발한 척도로써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와 같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나눔활동의 실태조사는 김동배와 조학래(1996)가 개발한 척도로 이타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총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경기교육중단연구는 친사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였는데 관련 질문은 KCYPS에서 사용한 질문과 유사한 3개 문항으로 ‘주변에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같은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상으로 시민의식으로 분류되는 청소년활동의 효과들인 다문화수용도, 세계시민의식, 시민성, 공동체의식 등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 혹은 전 지구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역량은 청소년활동 관련 역량, 리더십, 임파워먼트, 생활역량을 효과로 제시한 연구이다. 먼저 청소년활동 관련 역량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된 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우, 문화예술 이해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말한다. 해당 영역에 포함된 문헌은 총 3편으로, 이중 2편은 청소년이 과학정보,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경우 과학적 태도, 문화예술의 이해, 이타성, 경제의식, 환경에 대한 책임감 등이 증진되는지 분석하였고, 나머지 1편은 해양활동의 참여 여부가 해양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개인역량 중 두 번째 영역인 리더십, 임파워먼트, 생활역량은 2000년대 초반에 개

발된 리더십생활기술척도(최창욱, 2001)와 임파워먼트(김희성, 2002), 생활역량(문명희·김진호, 2006)을 사용해 측정되고 있는데 관련 척도들은 개인의 내적변화와 대인관계,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개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종합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권일남과 김태균(2009)이 제시한 청소년개발 척도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척도는 앞서 연구되었던 내용들을 자아역량, 갈등조절, 문제해결역량, 성취동기역량, 대인관계, 리더십, 신체역량, 시민성 등으로 종합하고 구체화하였다. 이처럼 개인역량은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역량향상과 개인의 내·외적 성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청소년활동 효과연구 연도별 현황

효과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삶의 만족			2	2	3	2	-	1	1	-	-	-	1	12
자아개념			2	-	1	1	1	2	2	1	-	-	-	10
진로정체감			1	-	-	-	-	1	1	2	-	1	-	6
학교적응			-	1	1	2	1	2	1	1	1	2	1	13
문제행동			-	-	-	6	1	1	1	-	1	-	-	10
시민의식	다문화수용도		1	-	-	1	1	-	1	-	2	-	-	6
	대인관계		2	-	-	1	1	-	1	-	1	-	1	7
	공동체의식		1	1	1	-	2	4	3	3	1	1	-	17
개인역량	활동관련역량		2	-	-	-	-	1	-	-	-	-	-	3
	리더십 등		1	1	1	-	-	-	2	1	-	1	-	7
계			12	5	7	13	7	12	13	8	6	5	3	91

표 7은 분석문헌의 효과를 연도별로 정리한 표이다. 먼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청소년활동 효과는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대 초반에 행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창의체험활동이 등장했던 2009년과 자유학기제가 등장한 2013년을 기점으로 진로정체감 관련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과 관련 없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직접적인 역량향상을 파악하는 연구는 세 편만 확인되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도별 현황은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연구가 정책의 변화 및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게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로서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을 주요한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수행된 청소년활동 효과성 연구들 중 실증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라 문헌들의 일반적 특성과 청소년활동의 범위,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문헌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최근 학계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연구 현장에서 확장해야 하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분석문헌에서 사용한 연구자료 역시 다양성을 갖기 보다는 특정한 패널 자료에 치중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활동분야의 객관적 자료 구축 자체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현재 대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는 패널 자료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전국적인 표본을 사용하고 상세한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서는 연구자가 의도한 바대로 청소년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여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문헌들 중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단순 참석여부나 참여시간을 통해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패널 자료는 청소년활동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데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종단 자료를 횡단화 하여 사용하거나, 효과와의 상관관계만을 파악하는 연구방법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청소년활동분야가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축적을 위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구축에 힘쓰고, 심층적 연구방법 수행이 가능한 연구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분석문헌에 활용된 청소년활동은 동아리활동, 교류활동, 문화예술활동, 자원봉사활동, 모험탐사활동, 참여활동이 있었고, 모든 활동을 일원화하여 연구한 복합적 활동과 단순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여부만을 측정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청소년

년활동은 주로 참여여부와 참여시간, 횟수를 중심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연구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미시적 요소들을 통제하여 주변요인이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파악하는 경우는 드물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미시·거시적 요인을 제공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기도 하고, 청소년활동의 종류와 목적이 다양하여 통일된 변수를 찾는 것이 어려웠던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독립변수의 경험 정도와 효과와의 단순 상관관계는 청소년활동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연구에 활용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의 특징적인 요인인 공간의 크기, 지도자의 수, 참여하는 청소년 수, 각 프로그램의 진행시간, 청소년의 거주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의 거리 등 청소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Confounding factors)들을 미시·거시적 변인에서 찾고 종합하는 심층적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활동이 단순 참여여부와 시간이 보이는 효과를 뛰어넘어 청소년활동의 특징적인 구성 요소가 보이는 효과를 찾아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주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활동이 미치는 효과는 주로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형성하게 되는 의식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효과로는 삶의 만족감, 자아개념, 진로정체감, 학교적응, 문제행동, 시민의식, 개인역량으로, 대부분이 의식수준의 변화를 나타내고, 객관적 측면의 효과는 문제행동의 감소, 학교성적의 변화, 청소년활동 참여 후 관련 지식의 증가 등을 파악한 경우로 극히 일부분만이 확인되었다. 물론 주관적 의식변화는 청소년활동정책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활동의 객관적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인식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주관적 의식변화는 현재 수행된 대다수의 연구 모형처럼 청소년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면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다행스럽게도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에 중점을 두고 파악된 효과들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신뢰를 확보하고 청소년활동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객관적 변인들의 변화를 추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기반으로 청소년활동 효과성 연구와 현 시대에 청소년활동이 운영되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활

동 효과성 연구 확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활동이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장소에서부터 청소년활동의 상세한 구성요인을 자료화하여 축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현장 지도자와 연구자가 사전협력을 통해 청소년활동이 준비되는 과정에서부터 자료수집과 측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센터가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청소년활동분야의 자료구축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시도로 판단할 수 있다. 단,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원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수준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청소년활동의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검토하여 심층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2차 자료들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될 수 있는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하여 자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적절성을 지닌 자료의 장·단기적 축적을 위한 노력은 청소년활동 현장이 자료기반의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 효과성 연구에 있어서 청소년의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등의 의식적 변화를 갖는 것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으로 인한 직업, 진로, 성적, 객관적 건강상태, 사회참여횟수 등 객관적 효과를 파악해내는 것은 청소년활동이 갖는 대중적 지지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활동의 객관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보여주는 것은 청소년활동 참여를 선택하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단기적 의식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객관적 종속변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만을 논하고 있다. 앞으로의 청소년활동 효과성 연구가 객관적 변화와 장기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청소년의 객관적 성적, 건강상태, 진로 등 상세한 정보를 통합하는 패널 자료의 구축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장기적으로 활동과 참여 청소년을 팔로우 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료구축을 강화하여 관련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효과성을 종합하기 위해서

실증연구와 KCI 등재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기타 학술지에 발표된 효과성 연구와 질적인 효과를 심도 깊게 탐구한 논문들, 또한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추후에는 이러한 논문들을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상세히 탐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전문적 연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 있는 학회지의 논문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활동은 하나의 영역으로 국한되지 않고 학교, 예술,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적용되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타 분야에서 수행된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청소년활동 영역 내에서의 활동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논문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문헌만을 검색했기 때문에 비록 PRISMA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문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발표된 청소년활동의 실증적 효과를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이 보여준 효과를 제시하고, 그 가치를 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현주·신인순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22(9), 25-48.
- 고관우·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곽윤정·강민수 (2013). 드림클럽활동 프로그램이 부적응 청소년들의 정서지능, 우울성향, 자아상,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4), 23-47.
- 구지윤·김유나 (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87-309.
- 권일남·김태균 (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영역구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 67-89.
- 권일남·김태균 (2017). 해외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역량 증진에 미치는 영향 : WFK(World

- Friends Korea) 증기봉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5(1), 87-96.
- 권혜원 (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동배·조학래 (1996). 청소년 자원봉사의 길잡이. 서울: 동인.
- 김미향·김성희 (2010). 중학생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1(1), 189-206.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희성 (2002)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측정에 관한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4, 91-113.
- 김남정·임영식 (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도영 (2013). 부모감독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과 교사애착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6), 315-336.
- 김도영 (2013). 공부압력과 공격성간의 경로모형 검증 - 청소년활동,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20(4), 225-243.
- 김도영·임영식 (2013). 청소년활동과 비행 간의 경로모형 검증 -자기효능감, 적응유연성,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5), 157-182.
- 김민선·송병덕 (2019).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종단 매개효과 : 긍정적 청소년발달(PYD) 이론의 발달자산모형 적용. 청소년학연구, 26(12), 425-453.
- 김민선·송병덕 (2019). 자기회기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6(10), 129-155.
- 김성훈 (2015). 청소년의 봉사 활동과 공동체 의식 :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237-259.
- 김영희·이재광·홍희동 (2015). 청소년의 해양체험 활동이 해양의식과 역량강화에 미치는 효과연구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의 활동을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22(12), 389-411.
- 김윤나·정건희·최윤진 (2010). 청소년자치활동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2(3), 1-23.
- 김윤나 (2012). 청소년정책참여활동의 특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 참여기구, 참여활동인식(필요성, 중요성), 참여정도(활동기간, 활동몰입, 참여수준), 만족도를 중심으로

- 로 -. 청소년시설환경, 10(2), 19-30.
- 김윤정·고정민 (2015).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5), 53-78.
- 김재엽·이동은·정윤경 (2013). 청소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3), 99-126.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진호 (201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경험이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1-18.
- 김태균 (2013).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매개효과 검증 -. 청소년시설환경, 11(2), 75-82.
- 김태균 (2019).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체험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미래청소년학회지, 16(4), 47-63.
- 김태형 (2020). 청소년의 관계적 특성과 청소년활동 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0(62), 81-119.
- 김형준·이광모 (2010).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 시간이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17-135.
- 도종수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 도종수·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류시영·강방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 아시아태평양잼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 문성호·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문성호·윤동엽·박승곤·정지운 (2016). 청소년활동 영역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3, 1-23.
- 박경실 (2015). 청소년들의 낯시 참여활동이 분노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6), 317-334.
- 박수원·김셋별 (2017). 중학생의 봉사활동 시간 및 친사회성,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145-168.
- 박영혜·김진숙 (2018). 난타활동을 활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5(9), 249-267.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학교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재숙 (2011). 초기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4), 47-69.
- 박주현·이태자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의 참여시간과 참여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13(2), 237-248.
- 성경주·이경아·김재철 (2017).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1), 51-72.
- 손원빈·조성근 (2017).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참여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 모형의 활용. 청소년학연구, 24(9), 223-247.
- 송수지·김정민·남궁지영 (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21-147.
- 신인순·전동일·김상용 (2019). 경기도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 종단 변화. 청소년학연구, 26(9), 29-52.
- 안재진·김선숙·이경상 (2017).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유형이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9(1), 85-107.
- 양계민·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혜린·윤영지·정보영 (2016).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공격성이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14(2), 5-15.
- 오경희·김동준·김재근 (2016).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청소년 역량개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2), 1-24.
- 유비 (2013).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이 인터넷 게임중독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417-441.
- 윤신웅·김새결·김지수 (2018). 초등학교 6학년의 팬텀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 휴대전화 의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0(56), 53-75.

- 이경상 (2016). 학교계획 봉사활동, 스스로계획 봉사활동, 물질기부가 청소년의 사회적, 개인적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2), 247-270.
- 이경상·박현수 (2018). 학교부적응이 우울을 매개로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 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 청소년시설환경, 16(2), 79-91.
- 이경혜·김혜인 (2018).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가 사회공동체성, 학교생활적응, 다문화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25(9), 179-202.
- 이수연·김형모 (2011).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비행청소년에게 미치는 임파워먼트 효과분석. 청소년학연구, 18(10), 207-228.
- 이용교·이중섭 (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사회참여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17(2), 203-232.
- 이응택·곽현·이은경 (2016). 청소년의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연구 :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2), 345-370.
- 이응택·오승근 (2020). 청소년기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1(1), 289-315.
- 이현주·채유정 (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임영식·문성호·정경은 (2010).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0), 253-276.
- 전자배 (2020).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유능감의 매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1(1), 101-127.
- 정건희·김용수·김경휘 (2013). 청소년활동이 시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거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179-198.
- 정득·김은수·이종석 (2016).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의식 :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259-289.
- 정선영 (2015).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참여수준이 자기주도적 및 성인의존적 진로 의사결정태도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13(4), 57-66.
- 조남익·김고은 (2014).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191-215.
- 조정환·송금주 (2015).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개요 및 체육학 분야의 적용사례. 한국체육

- 측정평가학회지, 17(3), 1-12.
- 조정은 (2010). 악기연주 활동을 통한 시설청소년의 사회적기술에 대한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7(7), 77-99.
- 조택구·최진이 (2013). 대인관계중심 레크리에이션 참여가 다문화청소년의 활동역량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0(8), 325-346.
- 진은설 (2013).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4(1), 185-217.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한솔·김주일 (2015). 청소년 봉사활동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3), 177-203.
- 최창욱 (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옥 (2017).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 231-261.
- 최경일 (2018).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대인관계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0(1), 117-135.
- 최경학·문성호 (201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의 효과 검증: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1-20.
- 최형임·이재성·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 허성호·정태연 (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43-164.
- 허철수·강옥련 (2010)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2(3), 25-46.
- 현안나 (201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 교급차이. 청소년학연구, 26(4), 409-437.
- 황동주·김진호 (2016). 청소년 멘토링활동이 청소년멘토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0(45), 409-437.
- 황은선 (2019). 한국인 영어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환·김영환 (2017). 국내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청소년학연구, 24(7), 1-28.
-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7), 1073-1082.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 G., & Prisma Group. (2009).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PLoS med*, 6(7), e1000097.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Abstract

Typolog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youth activities

Park Kyoungmi* · Park Hansol** · Choi Yeonjeong***

This study is to review and understand the empirical papers focusing on the impact of youth activit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66 academic papers published between 2010 and 2020 through PRISMA. There are three main results. First, most studies are corss-sectional analysis and the number of studies have gradually decreased. Second, youth activities in the studies are categorized into 7 activities; youth circles, youth exchange, cultural, volunteerism, exploration, participation, integrated activity. Third, the impact of youth activities are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career identity, school adaptation, reduction in the problematic behavior, citizenship, individual competence. Based on this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future studies regarding the impact of youth activities and discussed the importance of youth activities for the young.

Keywords : adolescents, YA, youth activity, activity participation, the impact of youth activity

투고일 : 2020. 11. 27. 심사일 : 2020. 12. 20. 게재확정일 : 2020. 12. 24.

* KM youth happiness research center.

** Integrated PhD program.,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 Graduate, Soonchunh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Science.